

후백제 역사성격과 후백제 문화권설정

조법중*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후백제 역사인식 개선 | 참고문헌 |
| 3. 후백제 역사문화권설정과 범 추진 | <Abstract> |
| 4. 후백제 관련 사업추진 | |

국문초록

후백제는 후고구려 즉, 태봉과 함께 신라후기 새로운 후삼국시대를 열은 주역으로서 특히, 후백제왕 견훤은 가장 먼저 새로운 역사행보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역사상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였다. 특히, 기존 삼국시대의 국가간 대결 양상과는 달리 신라로 통일된 상황에서 신라의 국가 운영이 한계에 달한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과 과거 역사적 근거에 기반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견훤은 신라사회의 골품제적 한계와 정복지역에 대한 가혹한 수탈 등 신라가 통일된 국가를 운영할 체계와 방식을 새롭게 구축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그 한계를 노출할 때 그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가를 개설하였다. 그같은 새로움의 상징은 ‘정개(正開)로 대표되는 견훤왕의 연호에서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견훤은 후백제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우리 역사의 정통을 마한과 백제로 연결짓고 그 근거지로서 금마 즉, 현재의 익산지역을 제시하여 우리 역사의 근본적 인식들이 고조선-마한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를 계승한 국가가 백제이며 그 정통을

*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E-mail: cho327@hanmail.net

되살리기 위해 다시 백제를 부활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이같은 인식은 결국 신라의 역사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이자 잘못되었던 역사체제와 백성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견훤의 인식과 함께 제시된 것은 백제부활의 실제목표 가운데 ‘의자왕의 숙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라와 당에 의한 협공으로 붕괴된 백제의 아픔을 회복하겠다는 명분이자 관련지역민을 중심으로 감정적 호소를 통한 결집력을 염두에 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감정적 모토는 결국 지역과 과거 연고성에 근거한 한계와 정치적 보복이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를 함께 보여준 것이다. 결국 후백제의 역사성격은 이같은 특성과 한계속에서 새로운 역사상을 전개시켰다. 이와함께 본고에서는 최근 발의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후백제문화권설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 後百濟, 견훤,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개正開

1. 머리말

신라의 삼국통일은 전쟁을 통해 영토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은 이루었지만 국가, 민족적 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통치이념과 체제가 운영방식은 마련되지 않고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었다. 이같은 양상의 지속은 결국 통일신라 후기 전 사회적 혼란과 지역적 분열로 결과되었다. 이같은 상황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등장이었다. 특히, 후백제를 개창한 견훤은 후고구려 즉, 태봉과 함께 신라후기 새로운 후삼국시대를 열은 주역으로서 특히, 후백제왕 견훤은 후삼국시대의 시작을 마련한 존재였다. 견훤왕은 신라의 지역적 차별정책과 골품제 등으로 상징되는 통치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를 후백제를 개국하였다. 그같은 새로움의 상징은 ‘정개(正開)로 대표되는 견훤왕의 연호에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라는 의미가 잘 나타났다.

견훤왕은 후백제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우리 역사의 정통을 마한과 백제로 연결짓고 그 근거지로서 금마 즉, 현재의 익산지역을 제시하여 우리 역사의 근본적 인식틀이 고조선-마한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를 계승한 국가가 백제이며 그 정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백제를 부활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이같은 인식

은 결국 신라의 역사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이자 잘못되었던 역사체제와 백성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을 천명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후백제와 견훤왕의 역사성격에 대한 기존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부각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교과서 등에 나타난 편향된 역사평가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새로운 역사이해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최근 부각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후백제문화권설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2. 후백제 역사인식 개선

1) 후백제에 대한 기존 인식

견훤과 궁예는 신라와 함께 ‘후삼국시대’의 주역으로 인식된다. 이들에 대한 역사기록은 고려시대 기록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에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록에 나타난 후삼국시대, 견훤왕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¹⁾

먼저, 『삼국사기』는 전삼국과 후삼국을 아울러 ‘삼국’으로 처리하였고, 견훤과 궁예는 신라의 반역자로 표현하고 있다. 즉, 고려왕조에서는 『삼국사기』를 통해 고려 건국의 정당성과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강조하고 고려왕조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상대자인 후백제왕 견훤의 역사를 후고구려왕 궁예와 함께 열전에서 반역자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삼국사기』에 나타난 인식이 이후 역사에서 견훤에 대한 평가를 규정해 버렸다. 이는, 고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위협적 존재였던 후백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역사적 의미를 최소화하려는 고려왕조의 입장이 그대로 표출된 인식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서는 ‘후백제 견훤’조를 기이편의 마지막 부분에 안배하여 단위 왕조사의 위상을 제시한 점이다. 즉, ‘후백제 견훤’이란 그 앞의 ‘남부여 전백제’와 호응하면서 독립된 왕조사의 위

1) 신호철, 1993,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이도학, 2015, 『후백제 진훤대왕』, 주류성
 강봉룡, 2021,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상을 나타내 후백제의 독립된 역사를 제시하였다.²⁾ 또한, 고려후기 대표적 문신 관료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의 역사를 정리하며 ‘백제기’에 이어 ‘후백제기’를 독립시켜 후백제에 단위 왕조의 위상을 인정하였다.³⁾ 이같이 고려시대 기록된 대표적인 3개의 역사서 가운데 2종이 후백제의 역사를 단위왕조로 인식하고 그 독자적 위상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제시된 견훤왕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후 후대왕조의 한국사 인식체계에서 『삼국사기』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화되었다. 견훤과 궁예를 신라 말에 빈발한 도적이자 반역자로 규정된 인식은 조선으로도 연결되어 조선 초기 지식인들의 후백제 인식이란 대부분 『삼국사기』 편찬자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았다. 비록 한 왕조로서 후백제의 위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견훤에 대한 유교적 폄훼의 논리 안에 갇혀버렸다. 즉, 중국 중심적 세계 인식과 유교 윤리적 포폄 의식이 더욱 심화된 조선의 지식인들은 후백제와 견훤의 당시의 시대적 의의에 대해 준별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자국사의 고유성에 대해 자각한 조선후기 실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후백제에 대한 인식은 백제사에 대한 인식과 섞이면서 일통의 주역인 신라와 후삼국 통일의 주역 고려, 그리고 주자 성리학적 정통론으로 무장한 조선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명분론에 갇혀 있었다. 특히, 백제나 후백제와 직접적인 역사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조선 왕조에서 오히려 백제와 후백제에 대한 폄훼의 시선이 강고해진 상황이 전개되었다.⁴⁾

한편, 현대시기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인식은 고려왕조가 구성한 삼국사기적 성격을 근간으로 하여 견훤과 신검 부자 갈등에 의해 패망한 나라, 신라에 적대적이고 신라왕을 죽인 존재, 지방세력을 포용치 않고 농민에게 가중한 부담을 준 존재로 묘사하여 전형적인 ‘부정적 이미지’의 상징같은 통치자⁵⁾로 인식시켰다.⁶⁾ 물론 강한 군사력과 대외관계의 강화와 같은 내용 언급이 있지만 긍정적 사료 조합과 같은 서술은 배제된채 고려 왕건이란 민족 재통일의 영웅을 출현시킨 조연이자 악역으로서의 인상을 만들어 내었다.⁶⁾

2) 이강래, 2011 『삼국사기 인식론』, 一志社, .
이강래, 2020. 『한국 고대의 경험과 사유 방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3) 『제왕운기』는 ‘고구려기’ 다음에 ‘후고구려기’도 설정하였다. 이는 후백제 등의 위상부각이라기 보다는 고려후기 분열적 위기상황에 대한 일원적 계통론의 결과로 파악된다.
이강래, 2020. 『한국 고대의 경험과 사유 방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4) 이강래, 2020. 『한국 고대의 경험과 사유 방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5) 이도학, 2004,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후백제사 서술의 문제점』 『전통문화논총』 2

이 같은 후백제와 견훤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신라사회 후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 당시의 모습과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어 객관적 평가를 위한 연구와 역사이해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인식 재구성

견훤은 신라가 정치기강의 문란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자 도탄에 빠진 서남지방 지역민과 그가 장악한 군사와 함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다. 견훤의 세력 확대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공격한 주현의 주민들이 그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의 전라도 지방이며 신라에 의해 멸망한 백제의 고토로서 이 지역은 신라 하대 농민의 반란이 연이어 발생하였던 곳이며 기근과 흉년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서남지방의 주민들은 신라왕실과 귀족들에 대해 불만과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을 것이다. 견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신라에 대해 저항적인 자세를 취할 때 그 지방 사람들은 그에게 호감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고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은 전주에 도읍을 정한 이후 견훤이 ‘백제’라는 국호를 채택한 것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⁷⁾ 또한 국호의 제정과 함께 견훤은 전주에 도읍을 정한 바로 다음 해에 건원(建元)하였다.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片雲和尚)의 부도에 새겨진 정개(正開) 10년 경오년(庚午年)은 서기 910년으로 이 해는 견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한 바로 다음 해에 해당한다. 즉 국호의 제정과 함께 입도(立都)·칭왕(稱王)·설관분직(設官分職)을 하여 완벽한 국가체제를 완비하였다. 이같이 광주에서 거병하고 독자세력을 형성한 이후 전주에 수도를 정하고 백제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명확히 하였다.

이 같은 역사전개과정에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은 후백제와 견훤관련 역사의 실체부각이 필요하다. 먼저 후백제의 국가적 위상과 시조 견훤의 탄생과 관련 하여서는 『제왕운기』에서 강조되었듯이 『제왕운기』 ‘후백제기’ 항목의 의미를

6) 문안식, 2008,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7) 견훤이 칭한 국호는 ‘후백제’가 아닌 ‘백제’이다. 고려시대의 김부식을 비롯하여 후대의 역사가들이 삼국시대의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를 붙인 것인데, 지금까지 편의상 일반적으로 후백제라고 칭하고 있다.

신호철, 1993,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신호철, 2008, 『후삼국사』, 충북대 출판부

부각하여 독립된 왕조사로 체계화되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견훤 관련 서술에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누락된 중요한 내용이 소개된 점도 부각되어야 한다. 즉, 『제왕운기』에는 견훤이 젓먹이일 때 그의 아버지가 들에서 밭을 갈고 있었고 어머니가 밥을 갖다주는 사이 아이를 수풀 아래에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젓을 먹여 주었다는 이야기에 종래 주목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즉, ‘하늘의 새가 내려와 어린 견훤을 덮어주었다’는 내용이다.

아이 하나를 얻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을 때, <아이들> 밭머리에 두고 부부가 김을 매고 있었는데, 새가 내려와 감싸주고 호랑이가 와서 젓을 먹였도다. 장성하여 신라(新羅)의 군사로 벼슬을 하였는데, 재능과 힘이 남달랐으며 성질은 호랑이와 같았다. 성(姓)은 본래 이씨(李氏)이며 이름은 견훤(甄萱)이다. 生得一兒業農圃, 置向田頭夫婦耘, 鳥來舒覆虎來乳. 既壯仕羅詣行間, 才力離倫性雄虎. 姓本是李名甄萱, [제왕운기]

이 내용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범이 젓먹여 주었다는 내용에 새가 내려와 덮어주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고구려 시조 주몽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유희가 나온 알을 들에 버리자 새들이 내려와 덮어 주었다는 주몽설화적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 또한 견훤의 신성성을 더하여준 매우 중요한 기록이란 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견훤에 대한 아들 신검의 평을 보면 비록 부친에 대한 찬사이기는 하지만 견훤의 뛰어난 무예와 장수로서의 지략과 백성을 위한 정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대왕의 신과 같은 무예는 매우 출중하였으며, 영특한 계책은 만고에 으뜸이었다. 쇠퇴한 말기에 태어나 천하를 다스릴 것을 자임하여 삼한 땅을 복종시켜 백제국을 부흥하였다.

도탄의 고통을 제거하니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었고, 격려하여 기세를 돋우기를 바람과 천둥처럼 하니 멀리와 가까이에서 준걸들이 달려와 큰 공이 거의 다시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지혜롭고 사려가 깊었다. (삼국사기 견훤전)

또한 견훤왕은 배포도 커서 918년 고려의 왕건이 등극하자 사신을 보내 축

하하고 공작선(孔雀扇)과 지리산의 대나무로 만든 화살을 선물로 주었으며 고려 왕건왕에게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절영도 총마도 선물하였다. 이같이 왕건왕보다 10년 연상인 견훤왕은 장형의 풍모와 위세를 발하며 함께 공존의 역사를 이끌었다. 또한 대구 공산(팔공산)에서 고려군을 대파한 후 왕건에게 보낸 글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활을 평양성(平壤城) 문루(門樓)에 걸고 말에게 패강(溟江)의 물을 먹이는 일이다.라 하였고”, “토끼와 사냥개가 다 함께 지치고 보면 마침내는 반드시 남의 조롱을 받는 법이요, 조개와 황새가 서로 버티다가는 역시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라며 서로 공존하며 상생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명종 대의 문신 이규보는 “전주는 완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옛 백제국이다”라고 하였다. 이 경우 전주 지역이 백제의 영토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필 ‘백제국’이라고 한 데에는 전주가 왕도의 위상을 지녔던 후백제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종래 간과되거나 부각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후백제 견훤왕이 새로운 문화군주를 꿈꾼 다음 내용도 새롭게 부각되어야 한다.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서적이 당한 참변에 대한 기록’에서 후백제왕 견훤의 중요한 사적을 전하고 있다. 즉, 그는 우리나라에 매우 많은 서적이 있었는데 이들 서적이 사라지게 된 역사상 2대 참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唐) 나라 장수 이적(李勣)이 고구려를 평정하고는 우리나라의 문물(文物)이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것을 시기하여 동방(東方)의 모든 서적을 평양(平壤)에다 모아 놓고 모두 불태워버렸으며, 신라 말엽에 견훤(甄萱)이 완산(完山) (지금의 전주)을 점령하고는 삼국(三國)의 모든 서적(書籍)을 실어다 놓았었는데, 그가 패망하게 되자 모두 불타 재가 되었으니, 이것이 3천년 동안 두 번의 큰 액(厄)이었다.."
 <아정유고 雅亭遺稿> 《청장관전서》

사료에 나타난 서적의 참화 첫 번째 사건은 고구려의 수 많은 책이 당나라 장수 이적에 의해 불탄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견훤이 후백제 왕도 전주에 모은 책이 당한 참화를 설명한 것이다. 비록 서적이 사라진 안타까운 사건이

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실은 후백제 왕도 전주가 우리 역사에서 서적의 도시 즉, 기록문화의 본령으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즉, 후백제 시기 견훤이 후삼국통일 수도를 꿈꾸며 전주를 화려하게 조성하고 이에 부응하는 학문과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에 걸맞는 서적을 모아 당대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어 기록을 보존한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후백제의 수많은 서적이 불탔지만 이후 고려시대, 조선 현재로 이어지는 전주의 기록문화와 관련된 역사문화적 전통을 서적 간행을 위한 원료인 ‘최고의 한지 도시’라는 명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⁸⁾

또한 후백제 견훤왕은 왕도 전주를 재구성할 때 수도로서 왕성과 도성을 수호하는 유교적 관념을 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주에는 중국의 『예기』에 나오는 인간을 돕는 4마리 동물인 기린, 용, 봉황, 거북 즉, 사령신앙(四靈信仰)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즉, 기린봉과 관련된 기린, 용머리고개의 용, 금양동 거북바위의 거북,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산천조에 보이는 봉황암의 봉황 등 도시를 수호하는 내마리 신성한 동물이 존재하는 도시이다. 이같은 인식은

즉, 고려시대 이전으로 소급되는 기린관련 명칭과 봉황, 용관련 명칭이 ‘기린봉(麒麟峯) 향린산(香麟山), 인지산(麟趾山)으로 남아있고’, 봉황관련 표현인 봉황암(鳳凰巖)으로, 용관련 표현은 용두치(龍頭峙)로 존재하며 금암동 구 KBS 자리의 ‘거북바위’를 통해 도시수호 사령신앙에 부응하는 완전의 땅 전주 수호인식이 남아있다. 또한 불교에서 도시를 사방에서 수호하는 사찰인 사고사찰인 남고산성의 남고사, 승암산의 동고사, 황방산의 서고사 화산의 진북사까지 존재하여 불교적으로도 사방을 지키는 가장 완전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⁹⁾

이같은 전주의 사령신앙과 사고사찰신앙은 후백제수도이자 후삼국 통일수도를 지향했던 견훤왕의 의지가 천명된 새로운 역사 출발에 부응한 인식이 구현된 모습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은 견훤의 역사정통성 회복과 왕도 수호를 위한 사령, 사고사 보호 관념의 투영, 삼국의 책을 모두 모아 최고의 문화수도를 구성한 견훤의 모습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이뤄나가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바르게 여는 시대’로서 자신의 연호를 정개(正開)로 표현하여 그 실천을 만천하에 표방하였다. 비록 역사의 주인공은 왕건이 되었지만 견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새롭게

8) 조법중, 2006, 『후백제와 태봉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新羅文化』 27

9) 조법중, 2003, 『後百濟 全州의 都城구성에 나타난 四靈체계 -전주 거북바위의 성격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9

조명되어야 한다.

3. 후백제 역사문화권설정과 법 추진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20년 6월 9일 공포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한국 고대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고대 문화권 정비, 지원 체계화를 통해 역사유적지구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6월 9일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6월 10일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¹⁰⁾의 제정¹¹⁾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한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사항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운영
- 특별회계 관련 사항
-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
- 개발이익의 재투자 관련 사항 등이다.

한편, 역사문화권은 6개의 역사문화권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이다. 관련 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의 동질성 회복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환경 전반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유산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10) 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으로 표현함

11) 법률 제17412호

가 입증된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서 점(點)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하여 역사문화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 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¹²⁾

법에서 제시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 정의
- ▲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설치
-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을 제출, 승인
-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 연구재단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지원시책을 마련, 추진하는 내용 등

이같이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 있다. 이는 특별법 제정의 배경에 문화재 한 점, 한 점과 같은 (點)단위 보호 정책에서 역사유적지구와 같은 면(面)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 2000년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 등의

12) ① 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12호, 2020. 6. 9., 제정] <법제처 제공> 이하 ‘역사문화 특별법’ 약칭

사례나 한국의 사찰이나 서원도 개별 유산보다 같은 성격의 군집형태로 연결되어 지정되는 것에서 잘 나타난 상황의 반영이다. 특히, 역사유산이 담고 있는 희소성만이 아닌 역사성과 고유성 및 정체성 등 정신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 지역 박물관 수장고에서 보관만 되고 있는 역사 유물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변화가 요청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고대 역사체계의 근간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까지 국내 6개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이 법은 고도육성 특별법과 달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포함한 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 법이라는 점이다.

둘째, 6개의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거점으로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보존·복원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기존의 지정문화재 위주인 보존방식에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까지 보존하는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셋째, 문화권 지정신청은 기초자치단체가 세부적으로 정해 신청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및 관련 기관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각 지자체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한국역사체계의 근간과 연결지어 파악해 함으로써 한국사 인식체계와 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연결짓는 역사인식의 지역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 법은 앞서 ‘문화권’ 개념으로 진행된 사업들 가운데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기존사업과 여기서 제외되었던 고구려, 마한, 탐라가 추가된 상황이란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역사체계에서 삼국시대 국가별 역사를 모두 망라할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 지역사 연구 활성화의 결과로 나타난 마한사, 탐라사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정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마한과 탐라 등 삼한사적 내용과 고대 공간적 독립성을 갖는 제주 고대사를 포괄한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한편,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고대 역사문화권이란 개념을 구체화 하지 않아 몇가지 문제가 명시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총칙에 나타난 목적과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 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 고대시기에 해당하는 후삼국시대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이는 한국사 전개과정에서 후삼국시대의 의미와 가치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사문화권 설정에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시기이자 내용이다.

또한 2조에 명시된 문화권의 공간 범위 문제이다. 이번 제정된 특별법은 기존에 문화권사업 개념으로 추진되었던 신라, 백제, 가야 등의 문화권을 유지하고 새롭게 고구려, 마한, 탐라가 추가되면서 그 대상 범위와 내용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되어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¹³⁾

이같이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그 취지와 내용이 기존 문화재 및 문화권 사업 등이 갖는 문제를 한국사 인식체계와 연결시켜 정리하고 지역 역사문화정책성을 정립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던 국가적 사업을 다양화 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법이지만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역사문화권 정비 등 관련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의 후삼국 시대로의 확대와 관련공간의 정밀한 재조정 및 확대가 반드시 진행되어야할 범으로 파악된다.

2) 후백제 역사문화권 설정의 필요성

후삼국시대는 신라 후기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신라사회는 뿌리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여 40여년에 걸친 후삼국시대의 출현이 나타났다. 후삼국시대는 특히, 각각 백제와 고구려의 부활을 천명하였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각각의 노력이 경주된 의미있는 시대였다.

13) 특히, 고구려와 마한의 경우 포괄 범위문제에 대한 지적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관련된 보완도 시급하다.

자료에 제시된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목적과 정의에서 밀줄 그은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1조 목적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의 포괄 대상 문제이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의 개념은 ‘고대’라는 시기구분을 어느 시대까지로 설정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한국고대사 시기구분은 통설적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다루는 시대가 가장 기본적인 범위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고조선부터 후삼국시대까지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인식은 현재,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사(1976년 간행)¹⁴⁾, 신편한국사(2002년 간행)¹⁵⁾ 및 과거 국정교과서¹⁶⁾와 현재의 중학교 역사¹⁷⁾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¹⁸⁾에서 교육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대시기 인식으로 유지되어 고대시기 역사에 포함되는 국가는 고조선에서 후삼국 시대까지이다.

또한 한국고대사연구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고대사학회에서 간행한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¹⁹⁾과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서인 한국사통론(변태섭)²⁰⁾, 한국사(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²¹⁾ 등에서 후삼국시대를 고대사회에 포함하고 있다.²²⁾ 또한 주목되는 점은 후삼국시대를 고대사에서 중세시대로 이행하는 이행시기로 본다는 점이다. 즉, 고대사에 속하며 중세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이행기’로서의 성격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삼국시대는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특히, 6차교육과정부터는 후삼국의 성립을 고대시대 마지막에서 그리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중세시대 출발에서 다루어 고대와 중세를 잇는 시대적 대 전환기로서 의미와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따

14) 국사편찬위원회, 1976, 『한국사』 3 (고대-민족의 통일) 3장 고대사회의 붕괴 5절 후삼국의 성립

15) 국사편찬위원회, 2002, 『신편한국사』 11(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3장 후삼국의 정립

16)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3단원 통일신라와 발해 2.신라의 동요와 후삼국의 형성

17) 2015 역사 개정교육과정(2019년 개정)

18) 2015 한국사 개정교육과정(2019년 개정)

19) 한국고대사학회, 2007,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제1부 국가별 연구의 흐름 신라하대, 후삼국

20) 변태섭, 1996, 한국사통론(4정판) 삼영사

4장 신라후기의 사회변동 II. 지방세력의 대두와 후삼국

21) 3편 남북국시대와 후삼국 4장 후백제와 태봉

22) 일부 개설서의 경우 후삼국시대를 중세 고려시대의 개시를 설명하기 위해 ‘중세귀족-관료국가-고려’에 편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신라말의 상황과 후삼국의 성립을 고려 왕건의 후삼국 통일로 연결짓기 위한 편제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개설서 및 한국사체계는 후삼국시대를 고대시대로 편제한다.

한영우, 2014,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라서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의 범위에는 후삼국 시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만주와 한반도 권역을 포함한 우리 역사영역에서 그 구체적 범위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고조선, 부여 등의 역사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 역사의 공간영역에서 고대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시대를 마련하려 했던 후삼국시대의 후백제, 태봉(후고구려)의 역사문화권이 누락된 것은 큰 무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고대역사문화 체계를 기반으로 관련 역사를 지역의 역사 정체성으로 연결지어 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행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에 크게 미흡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파악된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삼국 역사벨트조성사업 방안 등 제안이 주목된다.²³⁾ 또한 2021년 6월 1일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탄생과 성장, 죽음 등 개인사는 물론이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문화유적이 산재한 지역인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 경북 상주시, 문경시, 충남 논산시 등 7개 시군이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²⁴⁾도 주목된다.

따라서 후백제, 태봉까지 포함한 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적극적 추진이 요청된다.

4. 후백제 관련 사업추진

1) 후백제 긍정 이미지 부각 사업

(1) 후백제 건국 이념 ‘정개’ 및 문화군주 견훤 역사성 부각

후백제와 견훤의 연호인 ‘정개(正開)’의 의미와 특성 부각 사업 추진

후백제왕 견훤이 삼한의 모든 책을 전주에 모아 후백제 왕도를 지식문화의 중심으로 만들려 했으며 그 전통으로 전주의 출판문화, 한지문화의 전통이 연면히 이어졌음을 부각해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최대의 도서관이 만들어졌던 것과 같은 우리 역사 최대의 지식보고를 이루었던 문화군주 견훤의 역사성 부각

23) 박정민, 김동영, 권이선, 2020, 『태봉(후고구려)-후백제 역사벨트 조성과 현대적 계승』 『글로벌문화콘텐츠』 42.

24) 연합뉴스, 2021.6.1. “찬란한 역사 되찾자”...7개 시군, 후백제 역사문화 규명 ‘맞손’

(2) 후백제 역사공간 발굴 및 상징활용

후백제 왕도 전주는 도시화에 따라 현재 후백제 왕도의기본 범위 정도만 확인되었고 체계적인 궁성,관부 및 도시공간에 대한 내용 확인과 관련 발굴사업이 미흡한 상황이다.

전원은 900년 무진주(현재 광주)에서 전주로 천도하면서 후백제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건국과 함께 정개(正開)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삼한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이었던만큼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동고산성(東固山城)이 있다.

그동안 후백제 관련 학술조사는 남고산성과 동고산성이 중심이었고, 최근 서고산성과 우아동 일원의 후백제 생산유적, 후백제 궁성 추정지, 후백제 도성 추정지 등 일부가 조사되었다.²⁵⁾ 이것으로 후백제 유적의 분포 범위나 양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후백제와의 연결성을 찾아 볼 수 있는 조사 성과를 일궈냈다.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은 후백제 도성의 성벽을 시굴하면서 후백제의 역사유적 조사 및 발굴을 본격화하였다. 후백제 연구가 문헌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는 상황에서 국립전주박물관 이 후백제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후백제 도성과 궁성을 연차적으로 발굴하면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과 군산대학교 박물관 및 가야문 화연구소가 후백제 역사유적의 지표조사, 유적발굴에 동참하였다.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이 주도하여 후백제연구회가 태동하였고, 발굴 성과를 토대로 후백제 학술대회도 주도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후백제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후백제학회가 태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전주가 후백제 왕도였기에 국립전주박물관의 후백제 도성 유적 발굴은 지역박물관으로 역할에 안성맞춤이었다. 더 나아가 완주, 진안, 장수, 남원 등 전주권에서도 후백제 유적이 속속 발굴되면서 후백제의 국가적 위상과 역사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전주시에 분포되어 있는 후백제 유적을 찾기 위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남고산성 추정 행궁지 등 성곽유적 10개소, 황방산 건물지 등 건축유적 6개소, 우아동 와요지 등 생산유적 2개소, 무릉마을 추정 왕릉군 등 분묘유적 6개소, 옥녀봉 유물산포지 등 생활유적 5개소, 우아동 채석장 등 기타유적 3개소가 확인되었다.²⁶⁾

25) 국립전주박물관, 2015, 『후백제 도성벽 추정지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전주시 후백제 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전주시.

그런데 후백제 왕도 전주에서 왕궁과 도성유적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연구는 단편적 편린만 보여줄 뿐 아직 구체화된 성과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화 및 심도있는 조사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왕릉(논산 견훤왕릉)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 학술조사와 공간적 내용적 포섭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사령과 사고사찰에 근거한 후백제 왕도 전주의 통일수도를 염두에 둔 수도로 구성논의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를 수호하는 유교의 4령(기린, 용, 봉황, 거북)으로 상징되는 도시수호개념과 불교의 4고사찰개념이 적용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도시 전주의 역사가 통일수도를 이루고자 했던 견훤의 의지와 후백제역사속에서 창출된 완산주+전주=완전의 땅 개념의 지역정체성의 토대임을 부각하고 관련 인식과 캐릭터개발 지역 친화형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편, 완주 봉림사지 발굴에서 후백제와의 관련성이 고고학 자료로 증명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 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이루어진 발굴에서 개략적 성과가 나타났지만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관련 분묘공간들의 이장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군산 발산초등학교와 전북대박물관 등으로 분산된 봉림사지 유물들에 대한 원유적지 정비와 이전도 시급히 요청된다.

2) 후백제 역사문화공원 사업 추진

(1) 후백제 선양사업 추진

- 후백제 역사 연구사업, 학술사업 추진
:후백제관련역사,고고,예술 등 다양한 관련 역사연구진행
- 후백제 시민교육 및 문화사업
:후백제 견훤관련 예술, 문화예술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

(2) 후백제 역사문화공원 조성

후백제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후백제왕 견훤을 기억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후백제 왕도 전주에 후백제 역사유적과 연결된 공간에 후백제 역사문화관, 후백제 시조왕 견훤 사당, 후백제 역사문화교육관 등으로 구성된 공간조성이 요청된다. 특히, 후백제관련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는 상징조형물 등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구체 사례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공간 명량대첩기념공원²⁷⁾ 등이 참조된다.

이들 공간 사례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황토현 전적지) 부근 총 면적 30만1329㎡ 부지에 국비 등 370억원이 투입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묘역과 무명 동학농민군 추모관, 연수동과 전시관, 야외 캠핑장, 각종 편의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2021년까지 건립된다. 이곳에는 이미 동학농민군의 최초 전승지인 황토현전적지(사적 295호)내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에서 2004년 5월 11일 개관했는 데 기념관(40평). 강당(40평) 사당인 구민사, 전봉준(全捧準) 선생 동상(銅像), 제민당, 내삼문(內三門: 輔國門) 외삼문(外三門: 濟世門), 야영장(野營場) : 4,747평. 강당(講堂) 90평 등이 존재한다.

5. 맺음말

후삼국시대의 주역으로서 신라의 한계와 문제를 개혁하기위해 등장한 후백제 견훤왕은 새로운 역사적 세계의 비전을 ‘정개(正開)’연호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우리 역사의 정통을 마한과 백제로 연결짓고 그 근거지로서 금마 즉, 현재의 익산지역을 제시하여 우리 역사의 근본적 인식틀이 고조선-마한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를 계승한 국가가 백제이며 그 정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백제를 부활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이같은 인식은 후백제 왕도에 사령신앙과 사교사찰조성 및 후백제왕도를 가장 중요한 문화수도로 조성였다.

따라서 기존 역사교과서 및 개설서 등에 의해 형성된 후백제와 견훤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백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평가를 통해 기존 인식을 개선하고 특히, 부각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이같은 일을 위해서는 최근 발의된 역사문화권 특별법 내용속에 ‘후백제역사문화권’ 이 설정되고 후백제문화권이 포함된 특별법 법안수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논문접수일: 2021. 10. 30. / 심사개시일: 2021. 11. 16. / 게재확정일: 2021. 11. 19.

27) 명량대첩기념공원의 경우 명량대첩탑, 이순신상, 충무공어록비,유물전시관, 교육관, 체험공간 등이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1976, 『한국사』 3
- 신호철, 1993,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 변태섭, 1996, 『한국사통론(4정판)』 삼영사
- 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01,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 국사편찬위원회, 2002, 『신편한국사』 11
-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 조법중, 2003, 『後百濟 全州의 都城구성에 나타난 四靈체계 -전주 거북바위의 성격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9
- 이도학, 2004,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후백제사 서술의 문제점』 『전통문화논총』 2
- 조법중, 2006, 『후백제와 태봉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新羅文化』 27
- 한국고대사학회, 2007,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 신호철, 2008, 『후삼국사』, 충북대 출판부
- 문안식, 2008,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 이강래, 2011 『삼국사기 인식론』, 一志社, .
- 한영우, 2014,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 김주성, 2014, 『후백제의 왕궁 위치와 도성 규모』 『한국고대사연구』 74
- 국립전주박물관, 2015, 『후백제 도성벽 추정지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이도학, 2015, 『후백제 진훤대왕』 주류성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전주시 후백제 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전주시.
- 이강래, 2020. 『한국 고대의 경험과 사유 방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정민, 김동영, 권이신, 2020, 『태봉(후고구려)-후백제 역사벨트 조성의 현대적 계승』 『글로벌문화콘텐츠』 42.
- 강봉룡, 2021,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Abstract>

Studies on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Later Baekje(後百濟) and Establishment of Later Baekj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Cho, Bup Jong*

Later Baekje unfolded a new history in Korean history, especially in that King Gyeon Hwon of Later Baekje was the first to start a new historical course as the protagonist who opened a new era of the Later Three Kingdoms in the late Silla period along with Later Goguryeo, that is, Taebong. In particular, it has a great meaning in that it opened a new dynasty based on new alternatives and historical evidence in the past in a situation in which the state management of Silla reached its limit in the situation of unified Silla, unlike the confrontation between nations in the existing Three Kingdoms era. In other words, Unified Silla failed to establish a new system and method to run a unified state, such as the limitations of the Silla society and the harsh extortion of conquered areas, but adhered to the existing method and exposed its limitations. At this time, King Gyeon Hwon opened a new country by suggesting an alternative and a vision for such a problem. The meaning of such a symbol of novelty can be inferred from the era name of King Gyeon Hwon represented by 'Jung Gae'.

Meanwhile, Gyeon Hwon officially launched Later Baekje, connecting the orthodox history of our history to Mahan and Baekje, and presented Geumma, that is, the present Iksan region as a base, so that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our history was connected to Gojoseon-Mahan, and it was succeeded. It was declared that the country was Baekje and that Baekje was resurrected to revive its orthodoxy. In the end, such a recognition was to raise an accurate problem about the historical limitations and problems of Silla, and to proclaim an alternative that offered hope for the erroneous historical system and people.

However, along with this recognition of Gyeon Hwon, the actual goal of the Baekje revival is to resolve the 'royalty of King Uija'. This was the justification for recovering the pain of Baekje, which had collapsed due to the attack by Silla

* Prof. Dept. of History Education, Woosuk Univ.

and the Tang, and the content that had in mind the power of unity through emotional appeal centering on the local people concerned. However, this emotional motto ultimately showed limitations and problems in the sense that limitations and political retaliation based on regional and past ties were specified. In the end, the historical nature of Later Baekje developed a new history within thes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In addition,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ogether the necessity and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ater Baekje cultural sphere based on the recently proposed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Sphere, etc.’.

Key Words : Later Baekje, Gyeon Hwon, Later Baekj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Jeong-gae

